

## 2017년 11월 19일 "(추수감사주일)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" 살전 5:18 (요약)

### <도입>

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실천이 어렵게 느껴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고 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
**나비효과:** 기상학자 E. Lorenz 강연 제목(1972) "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?" 답은 yes 입니다. 과학적으로는 매우 작은 수치 차이가 예측불허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한 사건이 후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

### [1] 건초더미 기도회

세계선교 역사를 일으킨 나비효과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1806년 여름 뉴잉글랜드 지역 Williams 대학 학생 5명이 어느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. 그래서 한 건초더미로 몸을 피했는데, 그 안에서 이들은 학교에서 듣기만 했던 아시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. 놀랍게도 이것이 미국의 세계선교에 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. 인도자 Samuel Mills 가 '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'는 유명한 말을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기도와 선교에 동참하였습니다.

그 후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교회선교위원회(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)가 세워져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아시아로 나갔습니다. 70여년 후 무디 목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경회를 혈몬산에서 가졌는데, 이 중 100여명이 선교사로 서약하면서 학생자원자운동(SVM: Student Volunteers Movement)이 태동됩니다. 조선에 들어와 복음화에 투신했던 언더우드,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SVM 출신입니다.

소나기를 피해 건초더미에서 드린 아시아를 위한 5인의 기도가 세계선교의 위대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로 말마암아 조선 땅까지 선교화 되었습니다. 그 후 12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선교한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

### [2]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?

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나비효과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. 나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결국 **하나님의 궁극적 선**을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. 즉,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 선한 뜻이 있고, 설사 악이 개입하여도 선으로 선포하시는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. 이 믿음은 지금 상황에만 빠지기 쉬운 눈을 열어주어 궁극적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게 합니다.

**민 11:1~3**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의 이야기.

배경: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,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열렸습니다. 시내산에서 열 달을 머물었는데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. 3일 행군 후, 진영 끝에서 원망이 쏟아졌습니다. 진영 끝에는 출애굽을 따라 나온 외국인들(애굽인)이 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면 행군이 힘들어서 터진 원망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

자기 나라에서는 애굽인들이 주류였고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. 자기들이 늘 중심에 있고, 힘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 이스라엘인과 결혼했든지, 새롭게 여호와를 믿어보려고 따라왔을 것입니다. 그런데 출애굽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보니까, 자기들은 주변인에 불과했습니다. 진 중앙에는 제사장, 레위인, 12 지파가 차지합니다. 애굽에 있을 때와는 모든 것이 역전입니다. 그리고 광야로 나온 후에는 모든 대화와 일에서 '하나님이 하셨다, 하나님이 주셨다'고 하니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비하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

비슷한 사건이 **레 24**에도 나옵니다. 이스라엘 어머니와 애굽 아버지가 낳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합니다.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왜 하나님을 저주합니까?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들 불행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

이들이 배우지 못한 신앙은,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쫓아 나와서 “왜 지금 이 자리”에 있게 하시지에 대한 믿음의 안목입니다. 미래에 대한 긍정의 기대와 소망을 못 보니까 현재 당한 처지와 대우에 급실망하고 원망/저주하게 된 것입니다. 자기들을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쳤습니다.

**[3]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**

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을까? 답이 어렵습니다. 그러나 답을 모르면 삶의 현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. 만일 원망, 분노, 좌절 등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,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불신까지 간 셈입니다.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.

그들은 모두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, 함께 찬양하고, 시내산 은혜의 예배도 드리면서 ‘하나님을 믿겠어’라고 고백했겠지만, 그 다음 인도받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섭리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.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신앙이죠.

따라서 나의 현재 상황으로(가정, 교회, 게인스빌, 직장...) 이끄신 분이 선하시고, 또 선으로 이끄실 분임을 믿는다면 잘되고 기쁨 때만 아니라, 힘들고 실패할지라도 궁극의 선으로 이끄실 당신께 감사를 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 감사는 ‘나비효과’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전천후 감사의 파노라마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

상황을 초월하여 섭리에 대한 신앙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. 사람은 원망, 분노, 열등감, 비하감, 모욕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휩쓸릴 때 나의 에고 말고는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에고를 넘어서는 축복은 섭리하심에 대한 신앙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. 이것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.

오늘 바울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생명의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**<나눔의 질문>**

1.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? 과거와 현재에 내가 생각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.
2. 범사에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3.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출애굽 믿음과 광야에서의 믿음은 어떤 구별을 가지고 있으며, 또한 어떤 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(위의 민 11:1~, 레 24:10~을 참고해 보세요)